

# 소련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의 金融

鄭 雲 燦\*

## <차례>

I. 序論	의 展開過程
II. 蘇聯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 의 金融의 基本原則과 構造	(1) 蘇聯金融制度의 展開過程 (2) 東유럽 금융제도의 전개 과정
1. 經濟運營의 基調	2. 經濟改革과 金融改革의 基調
2. 金融制度의 基本原則	3. 蘇聯과 東유럽의 金融改革
3. 金融制度의 構造	(1) 蘇聯의 金融改革 (2) 東유럽社會主義國家의 金 融改革
4. 銀行制度의 役割	가. 金融構造의 變化
5. 信 用	나. 銀行管理原理의 變化
(1) 信用의 形態	다. 銀行과 企業의 關係變化
(2) 銀行의 信用統制手段	라. 利子率機能의 變化
6. 利 子	IV. 結論
III. 蘇聯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 의 金融改革	
1. 蘇聯 및 東유럽의 金融制度	

## I. 序論

이 글의 目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련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에서의 金融制度와 이들 국가가 경험한 金融의 變遷過程을 개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련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에서 시도된 金融改革의 限界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나는 수년전부터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 자신의 마음가짐 부족과 또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만족할만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소련 및 東유럽사회주의국가의 금융에 관한 연구 결과 보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쓰여졌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글 뒤의 참고문헌에 소개된 자료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결과일 뿐이다.

\* 서울大 사회대, 經濟學科

## II. 소련 및 東유럽社會主義國家의 金融의 基本原則과 構造

### 1. 經濟運營의 基調

소련 및 東유럽社會주의諸國의 經濟는 計劃經濟이므로, 生產・流通・分配 등 經濟活動의 大부분이 國家經濟計劃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國家全體의 資源分配은 中央計劃에 의해 수행되며 개별 經濟主體들의 經濟行爲가 집적되어진 市場의 需給關係를 반영하는 價格機構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2. 金融制度의 基本原則

金融은 社會主義 改革을 위한 手段으로 이용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의 社會民主黨 指導者였던 O. Bauer에 의하면 모든 銀行이 國有化되어 하나의 中央銀行으로 統合되면 그것의 理事陣은 最高經濟當局이 된다. 오직 은행의 國有化를 통해서만 計劃에 따라 社會의 勞動力を 조절하고 社會의 資源을 여러 生產部門에合理的으로 할당할 수 있는 能力を 社會가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소련 및 동유럽 諸國의 銀行은 社會化・國有化되고 고도로 集權化되어 있다. 銀行은 國家와 人民으로부터 支拂手段을 集中하고 經濟計劃에 입각하여 現金과 기타 支拂手段의 配分을 실현하며 企業과 諸機關의 資金의 使用을 감독한다.

### 3. 金融制度의 構造

東유럽國家들은 2차대전후 소련의 銀行制度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모든 銀行을 國有化하였다. 이로 인해, 商業銀行은 中央銀行에 合併되어 單一의 機關으로 되었으며 종래의 貯蓄銀行이나 農業協同組織과 같은 信用機關도 새로운 信用制度로 統合 또는 廢止되었다. 그結果, 소련 및 동유럽國家들의 은행제도는 單一銀行制(monobank system)를 근간으로 하게 되었다.

單一銀行制는 소련에서 발달된 銀行組織으로 國立銀行(state bank)이 中央銀行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商業銀行的인 機能도 갖는 형태를 의미한다.

國立銀行은 發券業務를 수행하는 외에도, 社會主義經濟部門에 대한 유일한 短期信用 機關이며, 社會主義經濟部門에 있어서 國有企業相互間의 去來

〈표 1〉 소련 및 유럽社會主義 國家의 銀行組織의 構造

國家 \ 銀行	中央銀行 (國立銀行)	投資銀行 (產業銀行)	農業行	協同組合行	貯蓄行	外銀 換行	其 他
소련	○	○	—	—	—	○	—
불가리아	○	—	—	—	○	○	—
체코슬로바키아	○	—	—	○	○	○	○
東獨	○	—	○	○	○	○	○
헝가리	○	○	—	—	○	○	○
풀란드	○	—	○	○	—	○	○
루마니아	○	○	○	—	○	○	—
유고슬라비아	○	○	○	○	○	○	○

資料 : J. Wilczynski, 1982: 147

決濟는 전부 國立銀行에 설치된 기업계정을 통하여 移替・決濟되기 때문에  
決濟와 清算의 센터로 작용하기도 한다.

國立銀行以外의 전형적인 은행으로는 投資銀行, 農業銀行, 外換銀行 등  
의 特殊銀行과 個人部門을 대상으로 하는 貯蓄銀行이 있다. 몇몇 국가는  
清算銀行(bank of liquidation), 水產銀行, 協同組織銀行(cooperative banks)  
등이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國立銀行以外의 모든 은행은 원칙적으  
로 기술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國立銀行과 여러 經濟部門의  
媒介體의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特殊銀行이 없는 國家에서는 여  
러가지 銀行業務가 國立銀行에 의해 수행되는데, 극단적인例로서 알바니아  
의 경우는 1개의 銀行이 專門化된 部處로 나뉘어져서 이런 業務를遂行한  
다. 소련 및 東유럽國家들의 銀行組織은 〈표 1〉과 같다.

소련은 알바니아와 유고를 제외한 모든 東유럽社會주의국가, 그리고 쿠바  
몽고, 베트남 등과 함께 「國際經濟協力銀行(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에 가입해 있다. IBEC는 1964年에 설립되어 모스크바에 本部  
를 두고 있으며, 會員國間의 收支의 清算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目的이 있  
다. 유럽社會主義國家사이의 또 다른 은행은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인데 이는 1970年에 설립되어 모스크바에 本部를 두고 있  
으며, 共同의 利害가 걸려 있는 發展事業을 위한 長期貸付를 담당하고 있다.

#### 4. 銀行制度의 役割

社會主義의 銀行制度의 役割은 資本主義의 그것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

르다. 첫째, 銀行의 私的 所有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銀行이 企業의 利潤을 얻기 위해 獨自的 活動을 추구하지 않는다. 銀行運營은 經濟計劃의 完遂를 위해 수행될 뿐이다. 둘째, 銀行을 통한 여러가지 政策은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經濟에는 短期貨幣市場, 株式去來, 銀行關聯機關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에 있어서 銀行은 企業活動을 감독하는 行政機關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運用過程에서 i) 短期信用의 貸付를 통하여 在庫를 관리하고, ii) 清算매커니즘을 이용하여 財貨의 移動을 감시하며, iii) 投資事業의 開發費用을 관장하고 建設過程을 검사하는 외에도, iv) 賃金基金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의 企業活動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련 및 東유럽국가들의 은행은 企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企業들은 거의 예외없이 去來銀行의 計定을 利用하여 그들의 事業決濟를 처리한다. 모든 결제나 신용거래는 은행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支店은 또한 임금支拂을 위한 現金도 供給한다. 個別銀行間의 去來關係는 그다지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投資銀行은 國立銀行에 그들의 流動資產을 預置하고 또營業資金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은행은 中央計劃遂行上의 行政管理시스템의in 색채가 매우 강해서 實行 및 管理機構로서의 權限과 役割의 範圍가 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役割의 遂行過程에서 銀行은 企業의 效率性과 成果를 검토해야 하고 企業으로 하여금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銀行이 이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直接的인 指標가 없고, 또한 金融制度의 效率性을 측정할 확실한 基準도 없다. 銀行의 利潤이라는 것은 과도한 貸出利子 收益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利潤極大化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또한 貸出活動의 擴大라는 것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生산확대의 자연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과도한 在庫의 累積이나 企業의 自己資金의 不足 및 과도한 生產費用에 기인한 支拂困難狀態의 結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個人이나 企業의 과도한 貯蓄은 무엇보다도 消費財不足의 결과이며, 國家豫算이 남았다는 것도豫算收入의 超過達成이나 주요 투자사업계획의 연기를 의미할 뿐이며 銀行

活動의 效率性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련이나 東유럽의 은행들은 그 成果를 나타내는 指標를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企業들의 過度한 信用과 過度한 負債를 最少化한다는 것이 傳統的인 基準으로 사용되어 왔다.

### 5. 信 用(Credit)

社會主義下에서는 資金不足에 의해 經濟發展이 저해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實物資源이 存在하고 生產이 社會的으로 바람직하기만 하면 金融手段은 計劃的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經濟計劃은 信用供給計劃을 내포하고 있으며, 後者は 特殊銀行과의 協力下에 中央銀行이 作成한다.

#### (1) 信用의 諸形態

信用形態는 資本主義下에서처럼 短期信用(流通資金과 生產資金)과 長期信用(施設投資資金)으로 구분된다.

i) 短期信用, 특히 商品流通에 관한 信用은 資本主義國家와 달리 중요하지 않다. 상품유통에 있어서의 去來信用은 販賣企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銀行에 의해서만 膨脹될 수 있다. 또 이러한 信用은 資源의 計劃的 利用을 沮害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된다. 이것은 社會主義國家間의 貿易信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IBEC 등의 銀行들로부터 輸入國內의 特定의 銀行으로의 貸出을 통해서만 貿易信用이 허용된다.

ii) 消費者信用은 貯蓄銀行과 消費者協同組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資本主義下에서보다 중요성이 작지만 점점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iii) 長期信用의 供給에 있어서의 主眼點은 事業計劃의 規模보다는 適合性과 效率性에 주어지고 있으며, 銀行은 적극적으로 投資計劃에 參加하여 豫想利潤을 평가하고 있다.

#### (2) 은행의 신용통제수단

金融上의 規定을 지키기 위하여 銀行은 資金利用者에 대해 강한 統制力を 보유하고 있는데, 貸出資金을 승인된 目的以外에 사용하는 경우, 事業이 期間內에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 滿期에 資金의 償還이 안되는 경우에 銀行은 다음과 같은 規制를 가할 수 있다.

i) 承認된 期間에 대해 罰則利子率을 賦課함

ii) 滿期以前에 信用의 償還을 요구함

- iii) 貸金支拂을 위한 資金貸出을 억제함
- iv) 장래에 있어서 信用을 거부함(단, 이 경우에 企業은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 6. 利子(Interest)

信用의 總量과 그 配分의 대부분이 국가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利子率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와는 달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계획당국의 最高水準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投資計劃에서는 이자율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運營段階에서는 信用의 效率的 配分과 需要를 促進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1960年代초까지 기업의 投資需要의 상당부분은 國家豫算으로부터 無利子의 無償融資에 의해 충당되었다. 그러나 이로인해 기업은 낭비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게 되었고 資本係數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결국 利子(capital charge)를 부과하면서부터 이러한 자원낭비는 많이 사라졌다. 이것은 1953年 유고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1964年 불가리아, 동독, 헝가리에서, 1966年 체코, 폴란드, 소련에서 도입되었다. 요즈음에는 「利子(Interest)」란 理念의으로도 正當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資本이 「죽은 労動(Materialized Labour)」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산 労動(Live Labour)」을 절약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J. Wilczynski, 1982:149)

## III. 소련 및 동유럽社會主義國家의 金融改革

### 1. 소련 및 동유럽의 금융제도의 전개과정

지금까지 現在의 소련 및 동유럽사회의 국가들의 金融제도의 기본원칙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금융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왜 經濟改革과 金融改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소련의 金融제도의 전개과정

소련의 金融制度는 크게 볼 때 1950년代까지의 모델과 1950년代 이후의 모델로 나뉘어진다.

「1930~1932年の改革」은 그 첫번째 모델의 글격을 形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개혁이 있기까지 소련經濟는 戰時共產主義(War Communism)와 NEP(New Economic Policy)라고 하는 2개의 과도기를 거친 후에 中央集權的 管理體制로 전환되었다.

소련에서는 1917년의 혁명 이후 약 3년간 모든 금융제도가 마비되었다.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사회주의사회의 비전에 따른 「經濟過程의 自然化」를 위하여 貨幣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貨幣廢止論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적 부의 일반적 형태인 貨幣를 거부한다는 단순히 理論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의 金融資產을 가진 상층계급과의 투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內部力量을 강화한다는 實踐的 의미에서도 중요하였다.

그러나 화폐없는 경제는 투입요소의 割當과 생산 및 소득의 分配가 실물 기준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화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금없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中央集中된 指示經濟에서만 가능하다. 경제실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의 勞動生產性은 1913년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인식한 소련정부는 1921年부터 新經濟政策(New Economic Policy: NEP)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21年 國立銀行을 再建하였고, 1922年에는 實用可能한 通貨制度를 金에 기초하여 개발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화폐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공통인식, 즉 기업의 經濟活動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용구로서, 인민의 자원을 가장 效率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또 이를 分配하고 또 再分配하는 용구로서 화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計劃經濟의 속성상 화폐는 자본주의에서의 화폐에 비해 한정적인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 계획경제에서 화폐는 경제주체가 선택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一般的 講買力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아무리 分權化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는 經濟發展의 방향과 국가의 경제적 자산이 사용될 목적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계획경제하에서의 消費者는 그의 화폐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소비재 공급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결정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1922년부터 1928년 사이에 NEP에 맞추어 재건되거나 새로이 설립된 國立銀行과 기타 銀行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30年代初부터 소위 中央統制經濟

(centrally administered economy)라고 일컬어지는 모델이 대신 등장하였으며, 이制度下에서의 金融制度가 「1931~1932年の 信用改革」을 가져왔다. 이러한 經濟모델은 2차대전직후 東유럽사회주의諸國에 도입되었다.

소련정부는 1929년 「소련의 產業管理原則의 再整備에 대하여(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rinciples of Management of Soviet Industry)」라는 決定을 통하여 生產物의 供給, 分配에 관한 統制를 엄격하게 中央集中시켰고, 「1930年の 信用改革」에 관한 決定을 통해 國立銀行을 國家經濟의 中心的인 貨幣 및 清算機關으로 정리하였다. 銀行을 통하지 않은 모든 信用活動과 清算活動을 중단하고 貸出活動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시도가 행해졌으며, 國立銀行이 企業에게 資金을 貸出할 수 있게 된 唯一한 기관이 되었다. 意思決定의 中央集中化를 통하여 貨幣流通計劃을 中央集中化하고, 貸出規制의 統一的인 體系를 감독하며, 國家經濟計劃에 맞도록 信用計劃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1931年の 決定」을 통해, 銀行의 貸出政策에 대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수적인 行政的 裝置가 추가로 마련되었고, 느슨한 貸出政策으로부터 엄격한 貸出政策으로의 급격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資金은 정부예산에서 조달되었고 運營資金의 신용은 은행이 담당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세워졌다.

1930년대 초에 제시된 金融改革의 원칙과 信用政策의 기본원칙들은 25년 이상 소련에서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도 이래 1960년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계획경제는 몇번의 침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의 모든 經濟指標는 하향추세를 나타내었다. 國家豫算과 信用計劃만 있으면 적절히 수행될 것으로 보이던 경제체제가 만성적인 민간의 超過購買力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투자계획에서 비용과 실행기간이 예상의로 늘어나고 그 결과 분배된 소득이 생산된 소비재량을 항상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상품의 집적으로 在庫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 (2)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金融制度의 전개과정

1945년 이후 동유럽사회주의국가에서는 소련의 monobank system이 그대로 들어와 이식되어졌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銀行制度는 나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國立銀行과 주로 特殊長期金融을 맡고 있는 特殊銀行의 구조를 갖

는 전형적인 monobank system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금융의 주요한 기능은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사전에 經濟計劃에서 결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배분을 관리하는 데에 주어졌다. 이 경우 투자의 재정지원은 전형적으로 特殊投資銀行이 담당했으며 생산을 위한 단기신용은 국가은행이나 기타은행에서 공급하게 되었다. 이같은 금융체계는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 雇傭機會의 창출이나 신규프로젝트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였고 「外延的成長(extensive growth)」에 기초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생산능력의 확장이나 양적 생산증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제에서 質的인 면이나 效率의 문제가 등한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기존생산능력이 완전가동단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外延的成長의 한계가 노정되게 되었다.

## 2. 經濟改革과 金融改革의 基調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개된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은 1950년대 중반이후의 「탈스탈린화」라는 政治的 환경의 조성과 앞서 제기된 「外延的成長(extensive growth)」의 한계라는 經濟的 동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수행이 단순한 신규사업의 확장보다 성장에의 기여가 크다는 인식아래 경제개혁의 주요방향은 企業自主性의 강화와 信用制度 적용의 확대라는 측면에 주어졌다.

경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금융개혁을 가져왔으며 이는 利子의 役割의 향상, 銀行의 역할강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간의 금융제도에서 貸出 결정의 주체가 은행이 아닌데서 은행의 2차적 審查機能이 이루어 질 incentive가 존재하지 않았고 利子率의 選別의 기능이 무시되어(즉, 자본이 기업에 무상으로 공여되어) 자본이용의 비효율을 증가시킨 데 대한 당연한 대응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과 동유럽의 금융제도는 1960년대 이후 상당히 변모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中央集中모델을 그대로 남겨둔 채 주로 기술적이고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分權化의 확대라는 정도로 제한되었고, 그속에서 금융개혁은 원래의 구조내에서 비교적 「組織上의 變化」에 집중되었다.

### 3. 金融改革의 내용

#### (1) 소련의 금융개혁

이와같은 금융개혁의 기조에 따라 소련의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기업생산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i) 國營企業의 設備投資資金을 國家豫算에서 거의 무상으로 공여하던 방식으로부터 長期信用 및 企業保有資金에 의한 방식으로의 전환

ii) 기업이 보유하는 固定資本과 運營資本에 대한 기본사용료의 부과

iii) 국립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 및 감독의 강화, 이를 위한 金利政策의 활용으로 그동안 저리 또는 고정적으로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었던 金利에 대해 目的, 期間, 融資對象企業의 이윤의 다파에 따르는 差別金利의 적용

한편 이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을 비롯한 은행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다 엄격한 금융통제와 조절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내용은,

i) 中央銀行이 대부분의 長・短期金融을 통합관掌

ii) 中央銀行의 기능중 일반은행의 기능을 특수은행으로 이전시켜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조정과 감독기능만을 수행

iii) 中央銀行總裁의 閣僚會議會員으로의 격상 등이다.

이리하여 은행조직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러시아 國立銀行(Gosbank) 이외에도, 대외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소련外國貿易銀行(Vneshtorg bank), 농업이외 부문의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소련建設投資銀行(Stwi bank), 소련國家勞動貯蓄局, 海外駐在銀行 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 (2) 동유럽사회주의국가의 金融改革

동유럽국의 금융제도의 변화는 금융구조·은행관리상의 원리·은행과 기업과의 관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以下에서는 이 세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자율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 가. 金融構造의 변화

금융구조의 변화는 多邊化(diversification)와 集中化(centralization)라는 일

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多邊化는 서로 다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獨立銀行의 설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기존은행에 있어서는 業務領域의 명확화와 투자은행의 기능강화로 나타났다.

폴란드의 경우 신용공여에 있어서 國立銀行의 비중이 1960년대로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IB(투자은행)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체코의 경우 1969년까지 투자 및 경상생산을 위한 응자라는 中央銀行의 기능을 수행 하던 체코國立銀行을 체코國立銀行과 슬로바크國立銀行으로 분할한 것을 포함, 7개의 은행이 설립되었다.

한편 제도상의 多邊化와 경제적 分權化라는 경향과는 일견 상반되는 듯한 金融集中化의 과정이 강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계획 및 관리면에서의 개혁의 결과로 보다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원을 많이 갖게 되어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금융통제와 조절이 필요하게 된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유고의 경우 1954년 이전에는 사실상 한 개의 은행만이 존재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에는 그 숫자가 2배개를 넘게 되었고 다시 1964~65년의 개혁을 통해 1백개 정도로 줄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公共的 통제가 용이한 거래의 計算 및 記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숫자의 감소이면에서는 투자은행의 수효증대라는 多角化의 현상이 역시 진행되었다. 한편 1960년대초까지 소매상, 농장, 협동상점의 재정적 요구와 민간 및 협동건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던 소규모의 協同銀行들은 감소되거나 폐쇄되어 그 기능이 商業・貯蓄銀行에 흡수되었고,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경우 協同銀行은 사실상 완전히 폐쇄되었다.

그러나 집중화가 은행수 감소 등의 양적인 집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유럽금융개혁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더 중요한 지표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일부 동유럽제국에서는 현재 투자를 위한 長期金融과 생산 및 무역을 위한 短期信用을 동일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는 등 單一特殊銀行이 모든 경제부문 및 그 하부부문의 제반금융을 통합취급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農業銀行(ABI)은 1955년 이후 편협한 특수투자은행의 성격을 탈피하고, 농업부문을 전담하는 universal bank로 그 성격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투자금융이나 생산 및 무역금융의 업무는 독립은행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폴란드의 경우 國立銀行은 1960년대에는 다만 단기신용만을 취급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투자은행의 기능을 인계 받았고 무역금융만 특수은행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나. 銀行管理原理의 變화

동유럽금융개혁의 두번째 방향은 은행관리상의 원리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서방제국들의 패턴을 따라 中央銀行政策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불가리아, 체코, 동독, 루마니아, 유고는 모든 일반은행의 기능을 특수은행으로 이전시키고 중앙은행에서는 전체적인 조정과 감독만을 전담하도록 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같은 「銀行의 銀行」 또는 「最終貸與者」로서의 중앙은행의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가격통제의 완화, material incentive 역할의 증대와 해외시장과의 보다 긴밀한 연결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새로운 요인이 됨에 따라 通貨安定과 國際收支 均衡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게 되었다.

중앙은행의 기능변화와 함께 일반은행들의 지위와 책임이 몇몇 부문에서는 강화되어, 금융계획추진을 위한 각부처의 관리사무소 역할에서 효율적인 투자, 생산 및 무역의 촉진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들은 통상기업과 같이 운영되어 타국은행과의 競爭뿐 아니라 동일은행의 지점사이의 競爭도 장려된다.

#### 다. 銀行과 企業의 關係變化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은행제도의 기업에 대한 역할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이 어떠한 형태로 공여되는가를 살펴 본 바 있다.(Ⅱ-5. 信用 참조) 경제개혁과 함께 특히 신용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貸付는 원칙적으로 투자기업에 한해 제공되게 되었으며, 赤字企業은 적자가 국가예산 또는 상급기관의 자금에 의해 보전될 경우와 각료회의의 특별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효과가 명확한 생산적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대부금의 일부는 기업의 계획수행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계획수행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 追加貸付, 低金利의 적용, 銀行監査의 생략 등의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 재무규율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특정대출의 공여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지

게 된다.

#### 라. 利子率機能의 변화

利子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산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경제운영 전반에서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利子는 경제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II-6. 利子 참조)

우선 종래 국영기업에 대하여 거의 무상으로 교부되어 온 설비자금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자를 물게 했고, 더 나아가서 반제를 요구하는 은행융자나 기업의 留保資金에 의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자금의 절약과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資金使用料를 매년 징수하게 되었다. 또한 국립은행에 금융활동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립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영업실적에 따라 差別金利를 부과하는 등 금리기능이 강화되었다. 동구제국에 있어서 1960년대까지 거의 미미했던 이자의 차별화는 금융개혁 이후 그 수준과 범위가 모두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overdue credit에 대한 罰則利子率은 유고의 경우 20%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동유럽사회주의국가에서 이자율의 기능이 최근에 많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한정된 틀안에서만 운용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유고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수준이 중앙경제계획체제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이자율의 수준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수준이 대개 오랫동안 안정적인 것이다.

동유럽제국에서는 앞으로 利子率政策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자의 부과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자가 企業總利潤의 40~70%가 되어야 한다며 이자율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25% 내외) 그러나 다른 측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機械化와 自動化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자본비용이 낮아져야 하므로 이자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면 1970년대초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이자율이 다른 경제정책수단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버렸다. 그러나 저축예금에 관한한 이것이 공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 IV. 結論

금융의 두가지 本質的 機能은 기업투자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자금공급시 기업의 투자내용에 대하여 제2차적인 審查를 통해 불건전한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란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이 정부영역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며,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巨視的인 總量計劃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이 위치지워지는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발전정도가 대단히 낮고 앞에서 언급한 금융의 두가지 본질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위와같은 경제운용방식의 결과, 경제의 효율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제약이 되자, 이제는 경제의 각부문에 自律性을 조금씩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경제실물부문의 기업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은 물론, 금융기관의 활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경제계획에 따른 총량규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微視的인 대출행위와 은행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전환은 매우 현저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의 역할증대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計劃經濟의 原理와 生產手段의 國有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불변인 한 여전히 정부의 계획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하고, 계획경제하에서의 통화, 신용, 가격 등의 제한된 역할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통제기관이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금융개혁후에도 각국의 경제제도가 많은 유사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전통적인 모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있어서도 동일하다), 경제계획의 달성을 위한 金融의 手段化라는 제도적 고려가 생략된

채, 낙후된 금융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부문에 가해져 있는 제반 통제 조치—금리, 신용공여 등에 대한—to 완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압되어 있는 것은 金融部門만이 아니라 實務部門 또한 역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역압, 더 나아가서는 經濟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政治의 역압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選擇의 自由」의 회복이 절실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朴丞列

1975 “東歐經濟改革의 背景과 實態,” 「東亞經濟」 9, 10月號.

宋淳慶

1979 “東歐經濟의 銀行融資制度,” 「東亞經濟」 Vol. VIII, No. 1.

吳贊郁

1978 “소련의 金融制度에 관한 考察,” 「東亞經濟」 Vol. VII, No. 2.

李南九

1976 “東歐의 經濟改革과 金融問題,” 「東亞經濟」 3, 4月號.

李泳錫

1979 “社會主義計劃經濟에서의 貨幣,” 「東亞經濟」 Vol. VIII, No. 3.

趙淳

1982 “經濟發展의 金融的 條件과 韓國金融의 課題,” 「서울대 經濟論集」 3月號.

海外經濟研究所

1978 「東歐社會主義諸國의 財政金融制度」, 7月.

1980 「소련의 新經濟管理制度」, 6月.

Arnold, A.J.

1937 *Banks, Credit and Money in Soviet Russia*, Columbia.

Horvat, B.

1976 *The Yugoslav Economic System*,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odolski, T.M.

1973 *Socialist Banking and Monetary Control*, Cambridge.

Wilczynski, J.

1978 *Comparative Monetary Economics*, Oxford.

1982 *The Economics of Socialism* (4th ed.), George Allen & Unwin.

Wiles, P.J.D.

1979 *Economic Institutions Compared*, Oxford.

Zwass, A.

1979 *Money, Banking & Credit in the Soviet Union & Eastern Europe*, Sharpe.